



RFID/USN 코리아 2010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

똑똑해진 RFID/USN ... 기술 융복합으로 인쇄와 점점 확대

한국RFID/USN융합협회(회장 김신배)는 구랍 2~4일까지 IT융복합의 핵심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RFID/USN 코리아 2010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는 산업전반에 걸쳐 IT기술과 결합된 융합상품 및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서는 개체 식별 및 상황 인식 IT 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IT 융복합 기술의 핵심으로 RFID/USN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RFID/USN에 대한 인식 제고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RFID/USN 도입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RFID/USN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행사의 중요한 목적이다.

'RFID/USN Korea 2010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는 162개 기업 및 기관의 제품/서비스 출품의 전시회, 45명의 전문가가 강연하는 컨퍼런스, 신제품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 등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또, 전시회는 16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360부스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관계자 3만 명 이상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한편, 인쇄업계에서는 유진프린팅(대표 김진배)이 참가해 RFID제품군에 대해 중점 홍보했다. 이밖에 전시회엔 민간 기업의 제품/서비스, 정부에서 추진한 RFID/USN 시범, 확산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약 8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최양희 원장을 비롯해, CL

GLS의 임오규 부사장, Dash7 Alliances Patrick Burns 의장의 기조강연 등 유수의 연구기관, 세계적인 RFID/USN 기업과 대학 등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45개의 주제에 대해 강연도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컨퍼런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동시 개최함으로써 전시참여 기업(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참관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비즈니스(수출) 상담회도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기업과 바이어간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1:1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3일에는 'RFID/USN 신제품 설명회'와 '기술이전 설명회', '외국인 대상 IT Tour' 등이 열려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을 소개했다. 이밖에 '한중일 민간 Round Table'(12월 3일)과 한국(RFID/USN융합협회), 중국(RFID산업연맹), 일본(자동인식시스템협회)의 RFID/USN관련 3국간 정례 회의도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2일에는 'RFID/USN 논문공모전 시상식'과 아울러 RFID/USN 분야의 우수논문 12편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새로운 시장 창출 방안이 제시

'RFID/USN 코리아 2010'에서는 산업의 스마트화와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방안이 제시되었다. 'RFID/USN 코리아 2010'은 자동차·제약·철강·전자·물류·의류·에너지·농화학 등 산업 분야에서 IT기반의 융·복합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장이란 대안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선 거의 모든 산업과 공공분야에 RFID/USN 기술 적용을 통해 다른 IT 솔루션과의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여러 산업의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 간 융합·연계 방안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스마트화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항공화물 실시간 추적은 물론이고 거래 당사자 간 양도·양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모바일·공급망관리(SCM)와 IT를 융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전시되었다. 거리 표지판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관광정보와 길찾기 역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부품 조달부터 생산·유통, 물류·판매 등 산업간 연계에 RFID/USN, ERP, SCM, POS시스템이 합쳐져 실시간 재고와 판매관리, 제품이력 관리, 생산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47개의 테마관으로 구성·운영

전시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정부에서 추진한 RFID/USN 시험, 확산 사업 등을 중심으로 4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u-IT융복합솔루션·서비스관은 모바일 RFID와 u바이크, u헬스케어, u시티 등의 다양한 모델과 유통·자동차·조선·철강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RFID 장비와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신기술 제품관은 국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만든 다양한 전자태그 관련 리더와 태그·프린터·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국제관에서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해외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u센서관에서는 초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센서와 무선센서, 스마트센서 등 다양한 감지기술이 전시되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RFID USN KOREA 2010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ference | 12.2(Thu.)- 4(Sat.)

